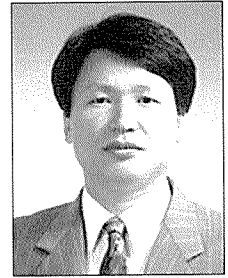


청소년들의 상처난 마음을 돌보는 학교도서관



양재한*

최근 약물복용, 무단결석, 각종 범죄 등 청소년 비행이 많은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급기야는 필자가 거주하는 인근도시인 밀양에서 한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사건으로 인해 여성단체를 비롯한 교육계에서 그 대책마련에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와 동시에 소위 '일진회'로 대표되는 학교폭력 문제가 연일 매스컴을 장식하고 있다. 이에 교육당국에서는 '학교폭력신고 교장·교사에게 인센티브를 주겠다, 학교 내 폭력사각지대에 CCTV를 설치하겠다, 스쿨 폴리스(School Police)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등 각종 제안들을 쏟아내고 있다. 이러한 제안들은 교육현장의 문제를 교육의 논리로 접근하지 않고 있어 또 다른 문제를 양산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청소년 비행문제는 이것이 발생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 지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그 해답을 얻을 수 있는 데도 말이다.

일반적으로 청소년비행의 직접적인 요인은 손상된 자아존중감 때문이라고 한다. 학교폭력도 청소년들의 좌절감과 분노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한다. 무엇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을 손상시키고 있으며, 그들에게 좌절감과 분노를 가져다주고 있는가.

이는 그 동안 우리나라 교육과정이 너무 외적인 성취에만 관심을 기울여 온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된다. 영어를 잘 들을 수 있는가. 수학문제를 잘 풀 수 있는가 등 지식 축적에만 관심을 두고 장려하였지, 청소년들이 자기인생의 의미를 발견하며 그 의미에 어울리는 만족할 만한 삶을 설계하고 살아가는 문제에는 관심이 부족하였다. 모든 학생들이 학교에서 자신이 존중받고 행복하다고 느낀다면 청소년비행과 학교폭력은 현저히 줄어들거나 사라질 것이다.

우리의 학교현장은 청소년들의 마음의 모습에 대한 관심 보다는 오직 공부만을 강조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환경에 잘 적응하는 아이는 '공부하는 아이'로, 적응을 못하는 아이는 '노는 아이'로 구분어진다. '공부하는 아이'는 출세나 물질적 성공이라는 중산층적 가치를 반영하며 살아간다. 반면 '노는 아이'는 스스로 자신의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점을 받아들이며, 출세와 물질적 성공에 대한 포기나 상실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

자신이 존중받지 못하고 상실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청소년들은 어른들의 공간으로 이내 침투해 들어와 상업적인 대중문화와 어른들의 유희문화에 쉽게 빠져들게 된다. 이러한 유형의 '노는 아이'들은 자기들끼리 조직을 만들어 그들만의 놀이의 수단으로 또래집단에 대한 금품갈취, 폭행, 괴롭힘을 일삼는다. 이들은 자신이 가치 있는 인간, 이 세상에서 꼭 필요한 인간,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가든 사랑받을 수 있는 인간이라는 생각이 부족한 낮은 자존심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게 된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청소년상담실, 청소년상담센터, 정신분석상담연구소, 소아청소년정신과 클리닉, 학교상담, 학교사회사업 등을 통해 귀를 기울이고 있지만, 실은 학교 내에서 청소년 상담에

* 우리 협회 권익협력위원회 위원, 창원전문대학 문헌정보과 교수, yjha@changwon-c.ac.kr

더욱 더 관심을 기울여야 이들 가까워서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특히,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학교도서관에서 청소년들의 낮은 자존감 극복을 위한 독서치료 활동을 한다면 청소년비행과 학원폭력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대안으로 보여진다.

우선, 청소년들의 낮은 자존감 극복을 위해서 그들의 응어리진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어야 한다. 동시에 이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자신의 꿈을 발견하며, 자신의 좌절된 꿈을 회복하는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 꿈은 미래를 창조하는 재료이며, 미래를 향해 나아가도록 하는 원동력이기 때문이다.

청소년들의 응어리진 마음을 치유하는 방법으로 치료적 글쓰기 활동이 있다. 치료적 글쓰기 활동은 통찰력을 길러주게 된다. 그렇다고 모든 글쓰기가 치료의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다. 자신에게 상처가 되었던 과거의 사건을 자세히 묘사하고 그때 느꼈던 감정과 그때 사건을 보는 현재의 느낌을 함께 쓸 때에만 탁월한 치료의 효과가 있다. 글쓰기를 통해 감정과 사건, 지금의 감정과 그때의 사건을 통합하는 과정을 거친 후에 감정의 지배를 받기 보다는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상태가 된다. 그 결과 치료의 효과가 있는 것이다.

이호철은 상처받은 아이들의 마음을 치료하기 위한 치료적 글쓰기 활동을 시도하여 그 결과를 『학대받은 아이들』이라는 한 권의 책으로 묶어 출간하였다. 응어리진 아이들의 마음을 치료하는 데는 특별한 방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입은 상처가 깊지 않게 겉으로 드러내어서 독을 풀어주는 일부부터 먼저 하여야 한다. 아이 스스로 학대 받은 일을 밖으로 드러내는 작업, 즉 글쓰기를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응어리가 풀리고 상처가 치유된다.

동시에 청소년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꿈을 키울 책읽기도 병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유형의 책으로, 한 생애를 성공적으로 산 위인전이나 역경을 이겨낸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 도움이 된다. 대표적인 책으로, 김구가 쓰고, 도진순 교수가 청소년용으로 다시 편찬한 『백범일지』가 있다. 이 책은 전 생애를 조국과 민족을 위해 바친 겨레의 큰 스승에 대한 이야기로 청소년들의 가치관 정립에 도움이 된다. 한편의 책을 더 소개하면, 클레이 본 카슨이 엮은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 마틴 루터 킹 자서전』이 있다. 이 책은 세상의 모든 폭력과 억압에 맞선 검은 영웅인 인권운동자 마틴 루터 킹의 자서전으로, 자신이 선택한 삶을 진정으로 가치 있게 하는 것은 무엇이며, 인간에 대한 순결한 사랑과 열정으로 한 생을 불살랐던 한 개인의 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아름답게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역경을 이겨낸 사람들의 삶도 도움이 된다. 이에는 도로시 허먼이 쓴 『헬렌 켈러 : A Life』가 있다. 또한 맹인 박사 강영우가 쓴 『우리가 오르지 못할 나무는 없다』와 팔과 다리가 없고 오직 머리와 몸만 있는 오토다케 히로타다가 쓴 『오체 불만족』도 있다. 이 책들은 장애를 극복하고 인류를 위해 고결한 삶을 산 사람의 이야기들이다. 상실의 시대를 살아가는 청소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감동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책들이다.

이러한 유형의 치료적 글쓰기 활동과 치료적 책읽기 활동은 누가, 어디에서 진행하면 청소년들의 정신 건강에 실제적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훈련받은 사서교사들이 학교도서관을 중심으로 교내의 관련자의 도움을 받아 응어리진 청소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것이 최선의 길로 보여진다. 청소년들에게 학교도서관에서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손상된 자아존중감을 회복하며, 좌절감과 분노를 치유하여 건강한 정신으로 세상을 살아가도록 한다면 청소년비행과 학원폭력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